

'전주단오' 볼거리 · 먹거리 풍성

6월 8~10일 덕진공원 일원서 공연 · 풍년기원제 · 장사씨름대회 · 야시장 등 다채롭게 진행

전주시는 오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2024 전주단오'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전주단오 행사는 시민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기원제와 신명 나는 풍물놀이, 이희정밴드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전주단오의 대표 프로그램인 △풍년기원제 △전주단오 장사씨름대회 △학술포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주단오 장사씨름대회의 경우 첫날 초등부 경기가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성인부 경기가 치러진다. 또, 전문선수단의 시범경기도 만날 수 있다.

또한 올해 전주단오행사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단오 물맞이소 워터터널 △단오 세시풍속 체험 △전통놀이(쌍륙, 고누, 제기차기, 딱지치기, 투호) △한지소원등 소원지 달기 △스탬프투어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 전주 단오에서는 '맛의 고장' 전주답게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간에는 전주지역 봉사단체와 함께하는 먹거리 부스 운영되며, 야간에는 한·중·일 대표 먹거리 야시장이 열린다. 또, 미식 도시 전주의 대표 디저트 발굴을 위해

실시한 '전주한입(디저트) 공모'에서 당선된 일부 먹거리도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시음식 나눔 행사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단오 행사에 앞서 주민센터와 전주전통술박물관을 통해 기부받은 단오미로 단오 세시음식인 창포주와 수리취떡을 준비한다.

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행사장에서 무료 나눔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주단오 행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전주단오 행사에서는 덕진공원 메인무대에서 펼쳐지는 △

전통창극 '해, 심생원' △조선팔 △SING STREET 공연, 덕진공원 내 맑게 숲놀이터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공연 △전주씨네투어X산책 등 덕진공원 곳곳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전주단오는 단오날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전통 프로그램과 더불어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함께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 많은 기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130년 전, 그날, 전주성바로 여기'

전주시, 31일 동학농민혁명 전주 입성 130주년 기념식 개최

전주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의 전주 입성일인 오는 31일 녹두관과 전라감영 등 전주 일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전주 입성 1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박민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30년 전, 그날, 전주성 바로 여기'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먼저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을 찾아 무명농민군에게 헌화·참배하며, 왕기석 명창의 헌정 공연도 예정돼 있다.

이어 전라감영으로 자리를 옮겨 △동학농민혁명 전주 입성 130주년 기념식 △동학농민군 전주 입성 의미 관련 주제 특강 △전주시립국악단 동학관련 주제 기념공연 등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기념식에 이어 올 가을에는 '2024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 혁명의 기념과 기억'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의 혁명예술문화와 융합 전주의 문화도시 정체성 확립과 시민 등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제4회 세계혁명예술 국제포럼'과 '130주년 기념 미술전시'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동학농민혁명 전주 입성 130주년 기념식' 포스터

은 "동학농민혁명은 민중이 주도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전주입성 제130주년을 맞이해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 기념하기 위해 다채로운 뜻깊은 기념행사를 준비했으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학농민군은 130년 전인 1894년 5월 31일 호남의 수부인 전주에 입성해 전라감영에 농민군 총본부인 대도소를 설치했으며, 전라도 일대에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해 자치를 실현한 바 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설공단, 직원 공채 459명 지원... 평균 경쟁률 11.2대 1

최근 5년간 최다 지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직원 총 41명을 채용하기 위해 전주시와 협의를 거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한 결과 총 459명이 지원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지원자 수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2024년 제2회 경력경쟁 및 공개채용 직원 채용'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이 11.2대 1에 달한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1명을 뽑는 운영직 광고물 관리로 29명이 지원해



전주시설공단 본부가 위치한 화산체육공원 전경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일 직종으로 채용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직 행정도 6명 모집에 119명이 지원해 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단 공채 경쟁률은 지난해 1회 4.4대 1에서 2회 6대 1, 올해 1회 6.7대 1에 이어 이번에 이르기까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공단은 정년퇴직 등에 따른 결원 충원, 신규 수탁 사업 운영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확충한 인력으로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공단은 올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옥기기자

또 우수한 지역인재들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공정 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구대식 이사장은 "많은 지역 인재들이 우리 공단에 입사를 지원한다는 건 우리 공단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디지털 신기술세미나 참석자 모집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달 4일까지 사전접수

전주시가 디지털신산업의 중심기술인 인공지능(AI)이 바꾼 산업 트렌드와 생성형 AI의 발전과 활용, 기업의 AI기술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 세미나는 오는 6월 5일 오후 2시, 전주 테마호텔에서 'AI가 바꾸는 사람과 미래 그리고 기업'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지역 ICT/SW 관련 기업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대학생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육상훈 네

이버클라우드 AI SaaS 부문 리더가 'AI가 바꾸는 신산업의 길'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다.

이어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교수와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이 각각 '생성형 AI의 발전과 활용'과 '기업의 AI활용 전략과 유의점'을 주제로 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참가자는 오는 6월 4일까지 J-디지털교육관리시스템(jedu.jca.or.kr)을 통해 사전접수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융합사업단(063-281-4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기자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 감사패 수상

도 시군의장협의회, 김성규 · 장병익 · 최지은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이 23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 김성규(효자 2·3·4동), 장병익(완산, 중화산1·2동), 최지은(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은 각각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이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협의회를 이끌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도민의 입장을 반영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의원들은 투철한 봉사 정신과 소명 의식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옥기기자



수상자들은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지일관의 자세로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전주시가 평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에 힘써온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23일 행정안전부와 한국방재협회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31회 방재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방재의 날'은 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89년 UN 총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된 기념일로, 정부는 매년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단체 등 재난관리에 종사하는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 유공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는 이날 기념식에서 △재난 피해 사전 예방 △관련 국가 예산 확보 △재난 예방 분야 역량 강화 등에 힘쓴 공로와 성과를 인정받아 표창 수상자로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시는 △중인·월평·금삼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각종 방재시설의 관계

통합 운영을 위한 디지털기반 플랫폼 구축사업 △육의 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 및 합동 지도점검을 통한 축제장 안전관리 강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취약 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지원사업 등 국가재난관리 전반에서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비상 대비 업무'와 '안전한 국훈관'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재난관리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널리 인정 받게 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전주가 그만큼 재난 대비가 충실히 돼있는 도시임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과 유관기관,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합심해온 결과물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발전시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